

서울대학교 미술관  
청소년을 위한 작품 감상 워크시트

#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모던 리얼 Postmodern Real**  
2017.10.11.-11.28.

현실은 인간의 존재, 본질 그리고 세계의 경험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관계된 현실 속에서 그가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생각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이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을까요? 작가는 왜 그 특정한 현실을 선택했을까요? 미술관에 전시된 3개의 작품들과 함께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현실을 살펴봅시다.

MoA

서울대학교미술관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 1

작품을 잠시 동안 혼자서 봅시다.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작품의 어떤 모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지 생각해봅시다.



한운성, 욕심 많은 거인  
75x56cm, 석판화, 1974

작품에서 보이는 사물은 무엇인가요?  
작가가 코카콜라 캔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품에서 코카콜라 캔을 세게 누르는 힘이 느껴지나요?

작품에서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지,  
작품은 제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욕심 많은 거인’은 누구일까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한운성은 ‘무엇보다 작품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한운성의 코카콜라 연작은, 작가가 유학생활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한 미국의 현실을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나 상황, 더 나아가 여러분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1개의 사물을 선택해보고, 이 사물을 선택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만의 제목을 붙여봅시다.



제목: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통해 여러분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을 둘러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작품을 잠시 동안 혼자서 봅시다.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작품의 어떤 모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지 생각해봅시다.



공성훈

버드나무 1, 227.3x181.8cm, 캔버스에 유채, 2015

버드나무 2, 227.3x181.8cm, 캔버스에 유채, 2015

버드나무 3, 227.3x181.8cm, 캔버스에 유채, 2015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 작품은 작가가 살고 경험한 실제 장소인 일산 호수공원의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다음 중에서 이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골라보세요.

평화로운 쓸쓸한 신나는 두려운 익숙한 불안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왜 그런 느낌을 받나요?

이 그림을 보면서 현대인이 마주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나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공성훈은 우리 주변의 풍경에서 그가 본 것을 기초로 그가 받은 인상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버드나무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친숙한 현실의 모습이고, 작가는 버드나무로부터 받은 낯설고 두려운 느낌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2층 렉처홀 창가로 가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받은 인상을 표현해봅시다. 여러분이 받은 인상을 그리면서 다양한 선을 이용해봅시다. 진하게 그릴 수도 있고 중간 색, 혹은 아주 옅은 색의 선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명암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작품을 잠시 동안 혼자서 봅시다. 작품을 보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작품의 어떤 모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지 생각해봅시다.



정연두, Location #12  
122x155.6cm, c-print, 2006

작품 속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작품 속 인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작품 속 인물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작품 속 인물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작품 속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이 작품은 작가가 상상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주나요?



정연두는 2005년부터 Location 연작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경계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을 통해 재구성된 상황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함께 살펴본 이 작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었나요? 작품을 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멋지지 않나요?

‘현실’은 오랫동안 작가들이 선호하는 작품의 주제였으며, 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을 표현해왔습니다. 오늘 미술관에서 여러분이 본 것처럼, 사물을 통해 표현할 수도, 상상을 통해 표현할 수도, 받은 인상을 표현할 수도 있답니다.